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대 인플레가 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 Bloomberg: 연준, 올해 한번 추가 금리... 내년에 인하 추진

[미국 금융]

- WSJ: 금리 인상으로 대기업들 더욱 부유해져
- WSJ: 달러 강세로 기업들 해외 매출 줄어든다
- Bloomberg: 금 거래 팬데믹 이래로 '소강 상태'

[운송/항공]

- CNBC: 선박사 Maersk, "글로벌 무역 앞으로 회복" 잠정 전망
- CNBC: 많은 항공사들, 높은 높아진 비용에 빨간불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절도와의 전쟁'이 직원들을 위협하다
- Bloomberg: 디트로이트 노조들 전례 없는 파업 개시하다.
- Bloomberg: 기업가를 위한 온라인 미니 MBA 프로그램 출시
- WSJ: 애플, 부진 타결책으로 통신사에 의존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Inflation Expectations Fall to Lowest Levels in Over Two Years

미 기대 인플레가 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 미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점차 낙관적인 가운데 9월초에 미국 의 인플레 기대치가 2년여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시간대학 관련 예비치에 따르면 내년도 미 소비자 기대 물가는 8월에 예상했던 연간 상승세 3.5%에서 3.1%로 상승 예상폭이 하락했다.
-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비용이 2.7%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0년말 이후 가장 낮은 수 치다.
- 이같은 기대 인플레 수치는 연준이 다음주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US Inflation Expectations Fall to Lowest in Over Two Years Even so, consumer sentiment declined in early September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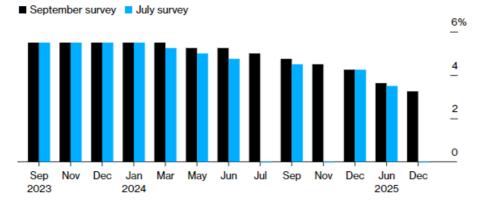
Bloomberg: Fed Seen Signaling One More Hike and Pushing Out 2024 Rate Cuts

연준, 올해 한번 추가 금리... 내년에 인하 추진

- 회복력 있는 미 경제 때문에 연준이 올해 한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고 당초 예상보다도 내년 금리를 치고 수준으로 더 오래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뉴스 설문조사 결과다.
- 이달 19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연준 FOMC는 금리를 5.25%~5.5%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5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응답됐다. 올해 7월에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3월에 첫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두달 연기된 5월에 인하할 것으로 수정 전망됐다.
-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입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분기별 경제 전망 요약에 포함된 이른바 점선 도표에서 올해 한번더 추가 금리를 전망했다.
- 그러나 설문에 참석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최종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Fed Seen Keeping Rates at Peak for Much of 2024

Economists have pushed out possible cuts amid stronger growth



Source: Bloomberg News survey of economists September 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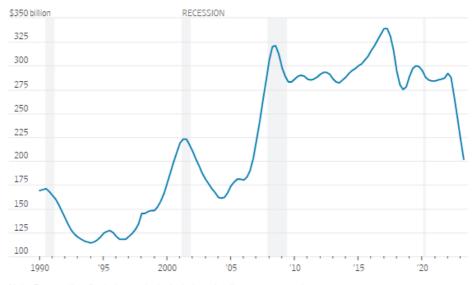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Rising Rates Make Big Companies Even Richer 금리 인상으로 대기업들 더욱 부유해져

- [요지] 팬데믹 기간에 고정된 이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운행에 예 치한 현금으로 부터 기업이 얻는 현금이 늘어나고 있다.
- 연준은 과열된 경제를 둔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 그런데 대기업이 며 더 안전된 회사들중에는 이러한 조치가 의도한 효과와는 정반대로 그들 의 수익과 지출 파워가 늘어나고 있다.
- 금리 상승의 수혜자들은 우량 차입 기업으로서 이들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 중에 저금리에 고정되었고 그 어느때 보다도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금리가 높아져도 그들의 차입비용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고, 단지 재융자할 때만 채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모아둔 현금에서 더 돈을 벌수 있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Non-financial corporate net interest payments, whole economy



Note: 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 includes miscellaneous payments Source: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SJ기사

WSJ: Strong Dollar Cuts Into Companies' Overseas Revenue 달러 강세로 기업들 해외 매출 줄어든다

- 달러 회복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기업들의 수익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경영진은 기록적인 달러 강세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실망감을 겪고 있다.
- Apple, Getty Images, UPS는 8개월만에 최고치로 달러가 반등해 해외 구매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 기업 판매와 수익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FactSet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외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버는 S&P 500 기업들은 2분기에 수익이 18% 하락한 반면에 매출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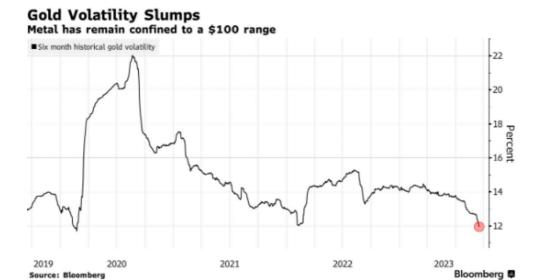
WSJ기사

Bloomberg: Gold Market Volatility Slumps to Lowest Since Start of Pandemic

금 거래 팬데믹 이래로 가장 저조해

- 팬데믹 이래 금 시장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저조한 상 태다.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지난주 금요일 금의 변동성은 2020년 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값 이 지난 5월 중순 온스당 1천9백불에서 2천불 사이의 범위에서 머물면서 변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 이같은 현상은 같은 기간동안 달러와 인플레이션 조정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금값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

생한 것이다. 금 매수자들은 금값이 약 1천9백달러까지 하락할 때마다 이 를 지지해왔고(지지선), 사실상 금값의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되었다.



Bloomberg 기사

[항공/운송]

CNBC: Shipping giant Maersk is seeing tentative signs of a bounce back in global trade

선박사 Maersk, "글로벌 무역 앞으로 회복" 잠정 전망

- 해운 대기업 Mares의 CEO Vincent Clerc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이 반등할 조짐을 잠정적으로 보인다고 한다.
- 그는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은 수요 증가의 원동력이었는데, 이러한 시장 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 앞으로의 회복 조짐은 올해의 재고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비가 활성화 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CNBC: More companies, especially airlines, warn higher costs will eat into profits

많은 항공사들, 높은 높아진 비용에 빨간불

- 많은 기업들이 유가와 임금의 급증이 이번 분기 이윤에 큰 타격을 입힐 것 이라 경고하고 있다.
- 특히나 항공유와 임금에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더 힘 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할리우드와 자동차 업계는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UPS와 항공사들은 새로운 대규모 임금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merica's Battle With Shoplifting Is Getting Dangerous for Workers '절도와의 전쟁'이 직원들을 위협하다

- 도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령 진열대를 잠가 놓거나 근무 날이 아닌 경찰관을 고용하고 피해가 심한 매장을 폐쇄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절도는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몇몇 소매업체들은 조직화한 절도 행위와 폭력적인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소매업 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 연례 조사에 응답한 소매업체 10곳 중 8곳이 2022년에 조직적인 소매 범 죄 사건에 관련된 폭력 및 공격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 기업들은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응하고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경우도 기업도 생기고 있 다.

WSJ기사

Bloomberg: United Auto Workers Call Unprecedented Strike at All Three Detroit Automakers 디트로이트 노조들 전례 없는 파업 개시하다.

- 파업하는 회사는 포드사와 제너럴 모더와 Stellantis사다.
- 연합 자동차 노동조합(UAW)이 세 개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늘 금요일 파업을 진행한다. 이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둘러싼 큰비용과 장기간의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움직임이다.
- UAW의 전략은 UAW의 파업 기금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성이 좋은 차량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노조는 교섭 진행에 따라 파업 장소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GM의 CEO Mary Barra 는 금요일 아침 CNBC에 UAW의 파업이 자동차 기업들의 제안에 의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금요일 노조와 기업들 간의 협상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 오늘 아침 GM의 주가는 0.6%, 포드는 0.1%, 그리고 Stellantis는 0.5%로 각각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n Online Startup Pitches a New Kind of MBA 기업가를 위한 온라인 미니 MBA 프로그램 출시

- 스타트업 Augments.org는 주로 창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6개의 모듈과 코스로 구성된 온라인 커리큘럼이다.
- 총비용은 1천7백50달러로 올해 3월에 문을 열었다.
- 수개월 만에 졸업할수 있는 수백개의 15분짜리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창업들이 생생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Apple Counts on Wireless Carriers to Avoid an iPhone Slump 애플, 부진 타결책으로 통신사에 의존

- 애플이 최근의 매출 부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도 움을 받기 위해 통신사들에게 의존할 예정이다.
- 애플은 2016년 이래로 가장 큰 매출 부진을 보인다. 이는 아이폰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AT&T와 Verizon은 고객들에게 구형의 스마트폰과 비싼 통신 요금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폰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3년에 걸쳐 스마트 폰 구입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 T-Mobile의 역시 iPhone 15 모델을 가지고 비슷한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프리미엄 통신 요금을 통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 이 매 1~2년마다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애플은 AT&T가 2007년에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얻게 되면서, 통신사업체들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WSJ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뉴욕 맨해튼 주택 평균 임대료 737만원..."한계치까지 왔다" "주택가격 상승에 구매 포기하고 임대수요 늘면서 임대료 급등" 미국 뉴욕의 중심부인 맨해튼의 주택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

미국 CNBC는 14일(현지시간)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을 인용해 지난달 맨해튼 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5천552달러(약 737만 원)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전월(5천588달러)에 비해 0.6%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Unsubscribe office@kocham.org</u>

<u>Constant Contact Data Notice</u>

Sent by office@kocham.org